

‘지역 조직화’ 화두로 포교 고민 한방에

지역 모임·어린이 교육 강화 새로운 접근으로 다각적 활동

조계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포교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인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 지하 2층에는 어린이 전용 법당이 마련된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어린이 포교를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는 셈이다. 특히 조계사는 ‘년 학원가나? 난 조계사 간다’라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어린이 전용 법당에서 실시해 포교에 교육을 접목시킬 계획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면 사회 진출 후 불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찰에서 어린이 포교는 법회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계사는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어린이 법당으로는 포교에 한계가 있다. 교육을 통해 어린이 포교를 새롭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년 학원가나? 난 조계사 간다’는 불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초등학교 4~6학년 아이들의 방과 후 교육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세계사 탐험대’, ‘우리역사 탐험대’, ‘미술 탐험대’ 등의 역사 및 미술 프로그램이 실시 중이다. 조계

사는 앞으로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해 예체능,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계사 선림원이 참선으로 성인들의 불교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있다면 ‘년 학원가나? 난 조계사 간다’는 어린이들의 불교 소양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성인과 어린이 등 모든 계층에 걸쳐 적극적인 인포에 나서겠다는 조계사의 의지를 보여준다.

조계사는 또 지역조직화를 통해 신도들의 신행활동의 체계화와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조계사는 신도들을 거주지에 따라 서울시 25개구별로 분류하고, 각 지역별 대표자를 선정했다. 지역모임은 방생법회나 각종 행사 때 지역 신도들을 중심으로 함께 활동하며, 평소에도 지역의 불교 현안에 대해 함께 대응한다. 또한 주지 토진 스님도 직접 25개 지역별 모임에 참석해 신도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다. 생활 속에서 기도를 실천하고, 포교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조계사 지역 모임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조차 지역 모임의 건의사항과 여론을 비중있게 생각하고 있다. 10월 17일 조계사를 방문한 한 국회의원은 지역 모임 대표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해당 지역 구 신도들의 건의사항을 즉석에서 해결해 주기도 했다.

조계사는 5월부터 내포가야산 성역화 사업 동참을 결의하고 ‘백제 미소길 걷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0월에도



‘시월 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조계사에 전시된 국화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진 한나라당 의원, 전세균 민주당 前 대표,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나를 비우는 미소기도 행복순례’를 진행하며 서산마애삼존불을 참배하고 보원사지 복원의 중요성 등을 신도들에게 일깨우고 있다. 16일 순례에서는 서산 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을 초청해 불교 활성화 및 보원사지 복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한 17일에는 신도들과 주지 스님이 서울 시장 선거와 투표의 의미에 대해 3시간 동안 토론회를 가졌다.

한편 조계사는 지금 국화향기가 가득하다.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 행사가 10월 21일~11월 10일 조계사 경내에서 다채롭게 펼쳐지기 때문이다. 전남 함평군에서 공수된 국화는 조계사 곳곳을 아름답게

장식해 불자들은 물론이고 조계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조계사는 국화 축제 기간 동안 교리 경진대회와 실버 예술제, 국화영산제, OCIM미술관과 함께하는 어린이 미술대회 등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특히 함평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마련해 도농교류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이런 활동들이 모두 지역모임의 구심점이 된다.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역모임을 활성화하고 불교 활성화를 위한 기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①

우리가 진실로 절실한 적 있었던가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慶山 八公山 冠峰 石造如來坐像
보물 제431호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44 선봉사



경북 팔공산 남쪽 관봉(冠峰) 정상에는 누구나 지성으로 기도 드리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이뤄준다는 약사여래좌상이 있다.

9세기 조성된 석불로 보물 제431호인 이 불상은 ‘관봉 석조여래좌상’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지만, 머리에 갓을 쓴 생김새 때문인지 ‘갓바위 부처님’으로 더 유명하다.

갓바위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길가에 선봉사가 내건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당신의 소원은 꼭 이뤄질 것”이라는 플래카드는 차치하고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갓바위 부처님을 힐끗 없이 찾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

관봉에 올라본 사람이라면 알지만 갓바위 부처님을 친견하러 가는 길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다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가파른 등산로에도 마음 속 소원 하나를 빌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짐으며 부처님 품을 향해 성심성려 다가가고 있다. 지역·타력신앙 등 거창한 말로 구복신앙의 이기심을 비웃기 이전에 스스로 물어보자.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위해 진실로 절실했던 적이 있던가. **조동섭 기자**

낙산사, 종부세 부과 부당해 대법원 간다

“사하촌 특수성 불구 과세 부당” 판례로 남을 경우 파장 우려

경내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다며 법정 소송 중인 낙산사(주지 무문)가 2심 판결에서도 패소에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정부는 낙산사가 속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낙산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는 사할 소유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집을 짓고 사는 등 토지의 사용 목적과 관리 실태로 볼 때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 경내지로 보기 어렵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 토지만 소유했다더라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엔 종부세가 부과된 지역은 양양군 전진1리와 2리 등 낙산사 사하촌 일대다. 이곳에는 일부의 상점과 일반 주택들이 분포돼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2008년 경 8000만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됐다. 낙산사는 전통사찰 경내지에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낙산사가 고법에서 패소하자 전국의 각 전통사찰들은 대법원 판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최종 결론에 따라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것이다. 일부 전통사찰들은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도 경내지인 사하촌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낙산사와 종단도 재판부가 사하촌의 특수성에 정확한 이해 없이 세무적인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종단과 낙산사는 상황을 공유하며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사찰에 부과된 종부세가 부당하다며 재판을 하는 것은 낙산사가 최초다.

총무원 재무부 김영주 팀장은 “전통사찰은 공적기능을 한다고 봐야한다. 세무적인 기준으로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낙산사 법주 정법 스님은 “상가보다 민가가 더 많은 지역이다. 발생하는 소득도 낙산사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활동에 쓰고 있다. 재판부의 현장 실사가 미흡했던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판례로 남을 경우 재판부가 획일적으로 판결할 수 있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전혀 줄지 않았다

서울시장 선거에도 여전히 설치 6·2 지방선거 비교 2배 증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시설의 투표소 설치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교회 등 특정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설치 금지선거 관리위원회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10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서울특별시민의 종교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종평위는 “특정종교시설 투표소 설치하는 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 행위다. 지금이라도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종평위가 선거를 앞두고 모니터링 한 결

과에 따르면 2206개 투표소 중 28개 투표소가 종교시설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개신교 시설 23곳, 천주교 시설 4곳, 대순진리회 시설은 1곳이다. 특정 종교의 시설로 의심되는 곳도 2곳으로 나타났다.

종평위는 모니터링 결과가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와 유사하며 지난 해 실시된 6·2 지방선거 때 설치된 종교시설 투표소 14곳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평위는 또 정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독감예방을 접종하면서 서울시 25개 구 중 10개 구가 종교시설에서 접종을 진행했다. 종평위는 13일 관계당국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20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를 방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자연은 특히 “8월 실시된 무상급식 투표 때 종교시설 투표소 중 상당수

가 인접한 위치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었다. 그럼에도 특정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종자연에 따르면 신림동 제2투표소였던 A교회 인근에는 신림동 주민센터가 위치해 있다. 중앙동 제1투표소인 B성당에는 산봉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

재가연대 김동건 대표 돌연 사임 표명

불교계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의 김동건 상임대표가 최근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10월 13일 만해 NGO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열린 재가연대 임시총회에서 “내년 초 정기 총회까지 사무국 정상화와 후임 대표 선출을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가연대는 김 대표 후임 논의와 조직 진단을 위한 TTT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김동건 대표의 사임 승인은 내년 초 열린 재가연대 정기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기범 기자

행운을 잡는 나를 찾는 참선을 합시다

단식

몸에 밴 관행 체질전환, 참선 단식으로 해결

행운이 다가가는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에서 자신에게 맞는 나를 찾는 참선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이어트 1일최고 3kg, 금연 금주 해결 요요현상제로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 퇴치·예방 면역성 노화방지 아토피 피부 미용 여드름 우울증 신경쇠약 정서공포불안 사고암기력 자신감 담력대법

단식(무단식-선택) <청소년 대학생 일반>

2011 겨울 수련일정 8일(12월, 1월, 2월)

1차 - 12월 23일 ~ 30일	2차 - 1월 7일 ~ 14일
3차 - 1월 20일 ~ 27일	4차 - 2월 18일 ~ 25일



접수, 자세한 문의는 전화나 인터넷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에서 받습니다

☎ 1644-5266, 070-7519-9929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제6차 참선대중화선회 삼매체험수련회 단기출가

선 회 3일 입재 : 11월 11일(금) 회향 : 11월 13일(일) 오후 3시	삼매체험수련회 8일 입재 : 11월 11일(8일) 회향 : 11월 18일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입재 : 11월 11일~
--	---	---

입재시간 오후 3시



참선전문도량 활인선원院(제주 원명선원) 안성맞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번지